

국제교류 다변화 통해 경제 활성화

군산시, 인도·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 교류 확장

군산시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제 교류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시에 따르면 해외 5개국 18개 교류도시와의 안정적 교류를 토대로 올해에는 아세안 국가로 교류를 확장하고 신중경제국인 인도, 베트남 도시와의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도웨리와 연계한 군산지역 관광객 유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군산시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군산시와 타코마시가 결연을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상호 초청 방문

을 추진하고, 기념식수,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오랜 신뢰를 통해 형성된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을 통한 도시별 맞춤형 교류사업으로 베이하이시와 도서관 인문 문화교류, 군산시와 의사협회 학술교류, 톨린강시에서는 제6회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개최하고, 칭다오시와는 군산기업의 중국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농수산물 중국 관측 행사, 박람회 참가 등 경제교류 협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인문,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도시별 특성에 맞는 쌍방향 교류를 통



군산시는 새해를 맞아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한 소통 강화로 내실을 다지면서 인도, 베트남 등의 도시와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그동안 중국사무소를 통한 군산기업의 조미김 20만 달러 중국 수출 및 양배추 116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대만시장 진출을 모색했을 뿐 아니라 LA농수산물 엑스포에 참여하여 1억 6천만원의 판매 실적과 5억원의 수출 계약 성과로 민주지역에 군산지역 농수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관리법 개정

익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산지 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산지전용허가대상이고, 경사도

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했다. 산림청은 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법을 전반적으로 검토,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및 태양광발전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위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산지에서의 태

양광발전시설은 지부면경이 불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기간 후 임야로 복구하게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출산장려 아기등록증 발급서비스 시행

익산시는 아기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아기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지난 2017년 이후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기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기의 여러 정보 등이 기록돼 있다.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한글, 한자), 주소, 생년월일이 표기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키 등이 기재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 1매를 제출하면 2주 후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은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익산시민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감성으로 시민감동의 친절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시민 공모 추진

군산시가 고용산업유기 지정 이후 대내외로 탑재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공모에 나선다.

기준에 사용돼 온 '드립허브'라는 슬로건은 대내외적으로 군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현재 위기지역의 이미지 탈피로는 부족하여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보통의 지자체들이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해 1~2억의 예산을

지출하는 용역 추진 방식을 과감히 탈피,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및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슬로건을 결정하여, 늦어도 하반기 중 새로운 브랜드를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교체로 인한 과도한 예산 소요, 혼란 방지 차원에서 흥

보효과, 교체비용, 표시물 특성에 따라 신규 사용 제작부터 점진적으로 새로운 슬로건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군산시의 발전방향이나 목표, 지향점,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마케팅 기능을 새롭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시민공모와 관련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15일 '새해 주민과의 대화' 시작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19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육산면을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대회는 주민과의 인사, 읍면동 브리핑, 신년사, 시정설명, 공감 대화 순으로 진행되며, 형식적인 순서는 과감히 생략하여 권위주의와 형식을 탈피한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실

질적인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진솔한 신년인사와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혁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의견과 건의사항은 수렴 후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년대회는 2019

년 시민소통의 첫 단추이며, 이와 더불어 읍면동 현장방문과 시장과의 특&톡 등 시민대화를 연중 실시해 끊임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신년대화를 계기로 시민들의 힘으로 잘사는 군산을 만들고, 2019년 계획된 많은 현안과 사업들의 힘찬 출발점이 되도록 도약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한 동네문화카페를 활성화시켰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강좌 운영

군산시, 평생학습장으로 직장내 공공장소까지 확대

군산시는 지난해 일상생활의 공간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동네문화카페'를 올해에는 기존 배달강좌 사업과 연계·확대하여 군산시 전역에서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사업을 추진한다.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사업은 시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강사와 사업주가 시민 5명 이상을 모집해 희망강좌, 희망장소를 정해 신청하는 평생학습 사업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범위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경로당, 아파트 관리 회의실, 직장내 공공장소까지 확대했다.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를 신청 받아 직원들의 현

실사 후 강좌를 승인·개설할 예정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사업은 우리 주변의 생활밀착형 공간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로까지 확대하여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군산시의 다양한 공간과 모든 이들의 일상에 평생학습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 가능한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시작된 '동네문화카페' 사업은 수강생 2,700여명이 참여해 소상공인 사업장 276개소, 강사 255명 등 일자리 창출 효과, 품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이끌어냈다.

/군산=김정훈 기자



하림·법무보호공단, 보호대상자 사회정책 지원 협약

(주)하림이 법무보호 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나선다. 하림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주거 등 지원이 필요한 교정시설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사회정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기업 내

인력 충원시 공단 추천 인재 고용을 계획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길연 대표이사는 "우리의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법무보호 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이중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